1980년대 북한의 단편소설에서 찾아 본 남한문학의 흔적

- 김관일의 「청년개척자의 수기」와 로정법의 「내 고향의 작은 다리」를 중심으로 -

강주영*

‖ 차 례 ‖

Ⅰ. 서론
Ⅱ. 「청년개척자의 수기」에서 읽는 「객지」의 흔적
Ⅲ. 「내 고향의 작은 다리」와 「깃발」의 시대상황의 유사성
Ⅳ.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통일을 위한 모색(결론을 대신 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시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였던 1980년대 북한소설에서 남한문학의 흔적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1980년대 북한문학은 새로운 문학의 교지에 따라 현실생활에 맞는 창작물이 대거 창작되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소설에서는 종전의 문학에서 볼 수 없었던 개인의 갈등과 욕망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북한에서는 남정현의 「분지」, 이문구의 「해벽」,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황석영의 「객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김지하의 「오적」, 홍희담의 「깃발」, 방현석의 「새벽출정」 등 반미의식과 민중항쟁, 통일 열망을 다룬 남한의 문학작품이 출판될 만큼 문학의 수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아래 창작된 작품 중 김관일의 「청년개척자의 수기」와 로정법의 「내 고향의 작은 다리」에서 황석영의 「객지」와 홍희담의 「깃발」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포착하게 되었다. 김관일의 「청년개척자의 수기」와 황석영의 「객지」

*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는 서로 모티브상의 유사성이 있는데 읍내 모티브, 비와 태풍의 모티브, 노동 현장의 노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들의 희생 등으로 묶어볼 수 있으며 두 소설이 채택하고 있는 모티브의 유사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남한의 시대적 상황은 혁명과 항쟁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아래 놓인 청년들은 북한의 청년들과 닮은 부분이 있다. 로정법의 「내 고향의 작은 다리」와 홍희담의 「깃발」에서는 돌다리와 자전거가 서정적인 느낌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데 돌다리를 건너 공장과 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공장과 항쟁의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두 소재는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두 소설에서 청년들이 시대의 부름에 기꺼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유사하다. 정치적 이념과 상황은 다르지만 청년이 당위적으로 호출되고 여성이 기꺼이 능동적으로 동원되는 상황은 두 소설에서 매우 각별히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문학 일색인 북한소설 가운데 미세한 균열지점을 보이는 80년대 북한소설에서 남한문학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은 분단문학의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의 시대에 남북한의 문화적 통일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주제어 : 1980년대 북한의 단편소설, 남북의 문화적 통일, 남북문학 교류, 호출된 청년들, 동원되는 여성들, 남북문학의 유사성, 김관일의 「청년개척자의 수기」, 로정법의 「내 고향의 작은 다리」

Ⅰ. 서론

북한의 문학은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주체문학의 안착이라는 결과를 내어 놓는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북한만의 특이한 현상인 '주체'를 강조한 사회주의 건설의 작품이 제작되었다. 당의 문예 정책이 바뀌면 그것에 일방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북한 문학계의 현실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으나 그러한 자연스러움의 사이에도 예기치 못한 균열의 지점이 발생하

기도 하였다. 그것이 바로 1980년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문학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창작 경향이 바뀌었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문학에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1] 김종회, 김재용, 남원진, 박태상, 신형기, 이명재를 비롯한 다수의 남한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북한문학에서 북한체제의 균열지점을 다각도로 읽어내었다.[2] 특히 김종회・고인환・이성천의 저작『작품으로 읽는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3]은 1980년대 문학에서의 미세한 균열지점을 작

1) 1947년 북한 문학계가 고상한 사실주의를 창작 방법으로 삼은 후에는 낡은 것은 거의 그리지 않고 오로지 긍정적 주인공을 통한 새로운 것의 제시에 급급하였다. 그러다보니 작품에서 갈등의 요소가 없어지는 작품들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랬던 것이 1952년 중반에 이르러 그러한 경향이 점점 사라지고 다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대립을 그리기 시작 했다. 이는 북한 문학 내부의 자기 토론과 비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소련의 문예 정책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58년 말 무렵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결됨에 따라 공산주의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공표되었다. 적대적 모순이 사라지고 오로지 비적대적 모순만이 존재하는 사회로 규정되면서 대립양상이 비적대적 모순으로만 그려지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1967년 이후 공산주의적 전망에 입각한 단일성과 항일 혁명 운동에 입각한 개인숭배가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주체 문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주체 문학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1980년대 이후 숨은 영웅 형상화의 정책 아래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영웅적인 인물의 형상화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생활의 부분들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작품들이 생성되었다.(김재용,『북한소설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pp.14-27 참조)

2) 김종회,『북한문학의 심층적 이해』-남한에서의 연구, 국학자료원, 2012; 김종회,『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김재용,『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김재용,『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2』, 한길사, 1996; 남원진,『남북한의 비평 연구』, 역락, 2004; 박태상,『북한문학의 현상』, 깊은샘, 1999; 신형기,『북한소설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6; 이명재,『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체』, 국학자료원, 1998;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편『북한문학의 지형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역음,『북한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2 등의 저작들에서 1980년대의 북한문학이 종전의 문학과는 다른 지점이 있음을 논하고 있다.

3) 김종회・고인환・이성천,『작품으로 읽는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역락, 2007.

품을 통하여 심도 있게 고찰하였으며 남북한 문학의 대화 가능성을 남북한 문학 겹쳐 읽기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새롭게 모색하였다. 80년대 북한 문학은 70년대와 90년대의 천편일률적인 주체문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4)]

4) 북한의 19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1970년대의 북한문학을 『조선문학』 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안민희(「북한의 '3대혁명 문학'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1970년대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09)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에서 '3대혁명 문학'의 양상을 파악한 연구이다. 이후 1980년대 북한 단편소설 연구는 송명희 · 송경빈(「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집, 1998, pp.135-156)의 연구가 있는데 80년대에 제시되었던 창작방법론의 변화가 문학에서 구체화되었다고 보고 이를 통해 1980년대에 새로운 단편소설의 특성을 추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후 1980년대 북한 단편소설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다가 최근 노상래(「1980년대 북한소설 연구-『1980년대 단편선』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1, pp.743-787)의 1980년대 북한 단편소설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1980년대 단편선』의 작품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및 숨은 영웅 찾기'와 관련된 작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1980년대 북한문학의 한 단면과 일상의 삶이 문학 속에 수렴되는 양상 연구한 것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북한 단편소설의 새로운 소재와 경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동우(「1980년대 북한 소설과 동원의 정치학-『1980년대 단편선』 수록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p.1-30)의 논문이 있는데 이는 『1980년대 단편선』을 중심으로 80년대 이후 북한 소설에 내포된 인민 대중 동원의 서사를 일종의 정치학으로 바라보고자 한 연구이다. 1990년대 북한의 단편소설 연구로는 한수경, 「북한의 통일 주제 문학 연구-1990년대 이후 단편소설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은종, 「1990년대 '사회주의 현실주제' 단편소설 연구-『조선문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08; 임진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단편소설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10; 박혜민, 「북한 소설의 여성 인물 형상화 방식 연구-1990년대 『조선문학』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11; 이재인, 「北韓의 現代小說槪觀-북한의 최근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5집, 경기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1997, pp.65-77; 연용순, 「1990년도 北韓 단편소설 연구-『조선문학』을 중심으로-」, 『順天鄕語文論集』 第5輯(朴泰男 · 朴乙洙 敎授 華甲記念號), 1998, pp.423-438; 김효신, 「90년대 초기 북한 단편소설의 경향 소고-『조선문학』(1991.2~1991.3)에 수록된 7편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학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반성으로 말미암아 이념과 서정성, 유일성과 다양성, 혁명과 일상, 당성과 민중성이 서로 얽혀 미묘한 균열의 지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에 가서 구소련연방의 붕괴나 동구권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체제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전까지는 커다란 사회변동 현상이 없었다. 하지만 사회내부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균열현상이 있었다.[5] 물론 80년대 북한의 문학은 비적대적 모순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건설의 문학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이 시기는 문학예술의 자율성이 표출되어 주체문예이론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80년대 북한문학은 주체사상에 순응하는 문학과 개인의 욕망이 표출되는 균열의 문학으로 양분할 수 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세속적 욕망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후자는 주체사상과 갈등하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6] 소설이란 허구적인 이야기로 현실이나 역사의 반영이며 인간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여 궁극적으로 인생을 표현하는 예술형식[7]이라는 데 기대어 생각해볼 때 80년대 남북한의 문화적 교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인 바 북한 문학계에 끼친 사회적 파장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김정일의 문화예술에 대한 총체적 간섭과 장려에 힘입어[8] 작가들의 상상력은 주체사상의 견제 아래에서도 유래 없는 자유로움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pp.149-163 등이 있다.

5)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도·농간의 갈등문제, 남·북한의 무한경쟁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신문제, 인텔리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문제, 중국이나 러시아 유학생들의 귀국과 일본 북송 교포자녀들의 활동 등에 따른 개방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말미암은 세대간의 갈등문제, 인민대중의 다양한 삶과 그들 삶의 미시적인 세부묘사와 연관하여 여성의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문제 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 깊은샘, 1999, pp.233-234 참조)

6) 김종회,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p.287.

7) 한국현대소설연구회,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4, pp.16-17 참조.

을 맛보았다. 이러한 상황아래 놓인 1980년대 북한과 1980년대 남한의 사회현실은 여러 가지 교차점이 있다. 북한은 1980년 10월에 있었던 6차 당대회에서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을 숨은 영웅으로 규정하는 '숨은 영웅'론이 제창된다. 숨은 영웅이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순결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해온 보통사람들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남한에서도 명민한 천재들에 치어온 대중들의 마음을 정치적 슬로건인 '보통사람들의 시대'[9]로 흔들어 놓았다. 보통사람들의 시대였으나 그 보통사람들의 눈과 귀는 진실에서 저만큼 멀어져 있었다. 물론 80년대의 북한문학이 총체적 북한문학의 변주곡과 같은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남한의 반독재 문학과 같은 선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80년대 북한문학이 가지는 균열지점이라는 것도 결국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틀로 귀결이 되는 선상에서의 균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당시 남북한의 현실은 일정부분 교차하는 지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하의 정치적 상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북한사회에 미친 남한의 영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북한의 문학 중에서도 특히 1980년대의 단편소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편소설이 그 시기에 폭발적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조선문학개관』(1960년대 하반기~1980년대 전반기)에서는 1967년 이후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온

8) 김종회, 『북한문학의 심층적 이해』-남한에서의 연구, 국학자료원, 2012, pp.353-354 참조.

9) '보통사람'은 우리나라 제13대 대통령인 노태우가 대선 당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로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엮은 『북한문학의 이해』(국학자료원, 2002, p.323 참조)에서 '숨은영웅'과 '보통사람'을 나란한 선상에서 바라 본 시각은 1980년대의 남북문학을 비교하는 일에 설득력의 일부분을 제공한다.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로 규정하고, '우리 문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혁명적 현실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10]고 개괄하고 있다. 이 시기를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고 개괄하는 근거로는 북한의 대표적 출판사라 할 수 있는 '문예출판사'가 발간한 잡지『조선문학』에서 1980년 이후 단편소설의 집중적 집필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고 그 결과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소설이 창작되었기 때문이다.[11]

이렇게 활기를 얻던 80년대 북한문학은 90년대 들어 된서리를 맞게 된다. 이는 1994년 북한문학의 최대 이론가이자 창작가이자 검열관이었던 김일성의 사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북한문학은 다시 경직되기 시작한다.[12] 이 때문에 1990년대의 북한문학은 많은 창작물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전의 문학으로 퇴보하게 된다. 이에 1980년대의 작품, 특히 김일성 유일사상에서 벗어난 작품들에서 남북한 문학의 접점을 포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출판사에서는 남한 문학의 작품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취사선택하여 출판하거나 원고를 개재하였다[13] 북한에서 높이 평가되는 남한문학으로는 반미의식과 민중항쟁, 통일

---

10) 박종원・류만, 북한문예연구자료선2,『조선문학개관』Ⅱ(1920년대 후반기~1980년대 전반기), 인동편집부, p.275.

11) 강주영,「무속신화의 모성애와 김정일 형상화-1980년대 북한 단편소설 김정민의「생의 축복」을 중심으로」,『어문학』제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 pp.57-58 참조.

12) 이명재,『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체』, 국학자료원, 1998, p.380.

13) 평양에서 발행되는 계간지『통일문학』에는 1989년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남조선 문학작품'란을 통해 고정희, 신경림, 백기완 등의 시, 공지영, 김인숙, 방현석, 윤정모, 박경리 등의 소설, 윤지관 등의 평론 등등의, 문학작품이 게재되어 왔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80년대 민족민중문학의 대표작이거나 통일 열망, 반미・항일의식,

열망을 다룬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남정현의 「분지」, 이문구의 「해벽」,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황석영의 「객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김지하의 「오적」, 홍희담의 「깃발」, 방현석의 「새벽출정」 등이 있다.[14] 이러한 사실은 남북 문학의 다양한 교류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남북한의 시대적 상황과 교류의 스펙트럼을 통하여 80년대의 북한 단편소설을 살펴보면 남북한 문학의 미묘한 교차점 또한 짚어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북한의 단편 소설인 김관일의 「청년개척자의 수기」(1985)와 로정법의 「내 고향의 작은 다리」(1987)는 남한의 「객지」(황석영, 1971)와 「깃발」(홍희담, 1988)과의 접점이 상당히 많은 작품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년개척자의 수기」에 나타난 「객지」와의 유사성을 모티브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내 고향의 작은 다리」와 「깃발」의 유사성은 혁명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요구되는 방식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Ⅱ. 「청년개척자의 수기」에서 읽는 「객지」의 흔적

여타의 소설과는 달리 1980년대 북한의 단편소설인 김관일의 「청년개척자의 수기」[15]에서는 노동의 현실에서 오는 개인의 한계가 보다 분명하게 읽힌다. 노동현장의 열악함과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체제저항, 생태 환경 등의 문제를 다룬 글들을 취사선택하여 싣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오태호, 「남북 문학 교류의 현실과 미래적 지향」, 『문학사상』, 2004년 6월호, pp.77-78 참조.)(김종회 외, 『작품으로 읽는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역락, 2007, p.118 재인용.)

14) 김성수,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 『통일정책연구10-1』, 통일연구원, 2001.7.(김종회 외, 위의 책, p.118 재인용.)

15) 김관일, 「청년개척자의 수기」, 『1980년대 단편선』, 문예출판사, 1990.

주인공 성철의 솔직한 심리 묘사는 흡사 남한의 「객지」[16]를 연상하게 한다.

황석영의 「객지」는 노동현실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 해방 이후 우리 문학에서 노동 현장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17] 노동자들의 삶을 치밀하게 드러내고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소설인 「객지」와 북한의 노동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인 「청년개척자의 수기」와의 유사성을 찾는 일은 남과 북의 문학적 교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남북의 노동 현실을 파악해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객지」는 생생한 노동 현장의 모습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으로 70년대 이후 노동 소설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18]된다. 「객지」는 운지 간척지 공사장의 일용 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루고 있는데 작가는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이 당장의 낙관적인 결과는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인공 동혁의 희생으로 다가올 희망의 불씨를 당겨두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동혁은 운지 간척지 공사장의 일용 노동자가 되어 열악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버텨가며 일을 한다. 동혁과 마

16) 황석영, 「객지」, 『황석영 중단편전집』, 창비, 2009.

17) 김상희, 「소설 <객지>에 나타난 공간과 인물」, 『동남어문논집』 제20집, 동남어문학회, 2005, p.102.

18) 안남연, 「황석영 소설의 역사인식과 민중성-황석영의 1970년대 소설 연구」, 『상허학보』 제13집, 상허학회, 2004, p.509. (우리 문학사에서 노동 소설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노동 문학은 70년대 이후 발전되어온 민중문학론의 구체적 텍스트라는 의미와, 민중민주 운동의 소설적 반영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 이 시기 노동 소설은 식민지 시대 이후 전개되어온 노동 소설의 흐름에서 하나의 절정을 이룬다. 심지어 노동 소설은 90년대 문학을 설명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한식, 「노동 소설의 성장 소설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국제어문』 제31집, 국제어문학회, 2004, pp.274-275 참조.))

찬가지로 소설에서 큰 무게를 차지하는 대위 또한 일용 노동자로 긴 시간 잔뼈가 굵었다. 간척지 사업의 고된 노동과 끼니를 겨우 챙겨 먹을 수 있는 함바의 형편없는 식사로 노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간다. 식권이나 생활용품이라도 사야할 때는 일과로 바꾼 전표를 여러 장 팔아야 했는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빚은 늘어나고 결국에는 빚에 의해 떠날 수도 없는 노예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독들과 감독들에게 빌붙어 노동자들의 착취를 돕는 십장들,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건설회사 간부들 간의 협착 등으로 노동자들의 원성과 불만은 쌓여간다. 이에 대위와 동혁을 위시한 노동자 세력들은 파업을 시도한다. 썩은 관료체제는 이들의 파업을 용의주도하게 구슬리고 힘없는 노동자는 얄팍한 속임수에 마음이 흔들린다. 대위는 파업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동혁은 흔들리는 노동자들 틈에서 입에 남포를 물고 성냥을 긋는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절박함은 북한의 소설 김관일의 「청년개척자의 수기」에서도 그려진다. 주인공 성철은 청년돌격대를 조직하는 사업 중 간석지건설에 서슴없이 동참한다. 청년의 피 끓는 의욕은 노동의 힘겨움을 잊게 하였다. 그러나 삼년이상 지속되는 노동에 성철은 생활의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의 권태로움은 지속적인 번민을 하게 만들고 노동의 부실함을 가져오게 한다. 임기가 다 되어가는 성철은 노동의 현장에서 벗어날 궁리만 하게 되고 돌격대원들은 그러한 성철을 감지한다. 성철이 축조한 제방안쪽의 장석구간이 무너지자 중대장은 전 대원들을 모아 힘을 합쳐 다시 메우게 하였다. 성철의 양심은 큰 벌을 받은 사람처럼 구겨져버렸다. 애써 자신을 합리화하며 간석지 사업장을 떠나려 하다가 태풍 속에서 무너지려하는 제방을 지키고 있는 대원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고 만다. 그리고 여자 돌격대원인 순영에게서 묘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순영은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이른바 '숨은 영웅'의 이름으로 작품의

무게를 지탱한다. 성철을 붙잡았던 것은 스스로 그곳에 남아야 하는 당위성이라기보다 느닷없이 불어 닥친 태풍과 여성적 매력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순영이가 힘겨운 노동도 마다치 않으며 짓는 미소 때문이었다.

열악한 노동의 현장을 떠날 수 없는 노동자들을 그리고 있다는 점, 이 두 소설이 생생한 노동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는 점, 현재의 희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아득한 내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점 등 두 소설에서 찾을 수 있는 유사성은 상당히 많다.[19] 이 두 작품의 유사성은 대표적으로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대배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읍내 모티브, 우연과 반전을 만들어 내는 '비'와 '태풍'의 모티브, 노동 현장의 노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들의 희생이라는 모티브로 묶어낼 수 있다.

1. 대비의 공간 - 읍내 모티브

「객지」에서 동혁과 대위는 공사장에서 부상을 입은 목씨에게 저녁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운지의 읍내로 나간다. 그런데 공사장과 읍내는 현실과 비현실의 공간처럼 대비된다. 읍내라는 공간은 두 사람에게 자신들이 처한

19) 북한의 소설을 겹쳐 읽음으로써 남·북 문학의 실질적인 교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낸 논문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코 이러한 유사성을 지나치기가 어렵다. 앞서 언급한 김종회·고인환·이성천의 연구는 북한의 소설 『통일련가』와 남한의 소설을 겹쳐 읽기하며 교차점을 찾고 있다. 『통일련가』 주인공 고광의 아버지와 『관촌수필』(이문구) 화자의 아버지 비교, 『통일련가』의 고광이 아버지의 주검을 확인하는 장면과 「어둠의 혼」(김원일)과의 비교, 『통일련가』의 고광이 겪은 빨치산 생활은 정지아의 『빨치산의 딸』, 조정래의 『태백산맥』, 김원일의 『겨울골짜기』, 이병주의 『지리산』, 이태의 『남부군』 등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고 있다. 아울러 『통일련가』 주인공 고광이 감옥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모습에서 『오래된 정원』(황석영)의 현우가 진술하는 수감생활과 유사한 점을 포착한다. 이는 남북한 문학의 교차점을 실질적 작품에서 찾아낸 연구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러 소설의 부분 부분의 모티브만을 단순 비교하는 형식이어서 소설을 전체적 맥락으로 비교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이에 대해서는 김종회·고인환·이성천, 앞의 책, 역락, 2007, pp.232-244 참조)

노동 현실을 환기시킨다.

> 그들은 붉은색 외등이 켜진 커다란 한옥의 솟을대문 앞을 지나갔다. 읍내의 유일한 요릿집인 모양인데 재건복을 입은 관리라든가 지방 유지들로 보이는 양복쟁이들이 문 앞에서 배웅나온 작부들과 희롱하고 있었다. <…> 돌계단 위에 퍼질러앉아 먹을 것들을 온통 토해내는 자도 있었다. 선술집, 시계포, 다방, 그리고 무선사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 이런 마을이 자기들을 황량한 공사판의 흙벽 속으로 밀어 처넣었던 게 아닌가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이 마을의 찬란한 진열장 속을 넘겨다보았을 때, 거기 비쳐왔던 것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품들 위로 비치던 자신들의 젖은 꼬락서니였었다. 그 희미한 윤곽은 잠옷 위로, 색깔들 위로, 가구나 찻잔들 위로 망령처럼 떠올랐었다. 그들은 얇은 유리창 위에 흐르고 있는 낯익은 집 동네의 생활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20]

「객지」에 그려진 읍내는 동혁과 대위에게 상실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노동 현실을 환기시켜주는데 「청년개척자의 수기」에서 태순아바이가 들려주는 설화 속의 서울 또한 「객지」의 읍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옛날 어느 한 섬에 어리숙한 한 농부부부가 살고있었네.
> <…>
> 어느날 속이 클클해진 사내는 안해에게 말했네.
> 〈 이봐, 아무래두 뭍에 나가 망건하구 갓을 사와야겠어. 〉
> <…>
> 뭍으로 헤매던 그 얼빠진 농부는 차차 뭍의 생활에 유혹되여버리구말았네. 그래 이번엔 서울이 그토록 좋다는데 거기나 한번 가보자 하구 마음먹었지. 그런데 그놈의 서울엔 사람들이 시궁창의 싸그쟁이들처럼 씨글씨글하기란

20) 황석영, 앞의 책, pp.208-209.

참…<…>그런데 하루는 기생년에게…<…>그 빌어먹을년에게 속바지까지 알뜰히 벗기우고 난 그 얼간이는 집으로 돌아왔네.[21]

섬에서 사는 농부 부부의 이야기는 성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태순아바이의 속내가 담긴 이야기이다. 섬에 사는 농부는 섬 생활이 지루해져서 아내를 남겨두고 뭍으로 나간다. 뭍에서의 생활에 유혹된 농부는 서울에 가게 되고 기생에게 빠져 몽땅 털리고는 섬으로 돌아간다.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려다 자기를 기다리던 아내를 보고 뉘우친 농부가 다시 돌아온 곳이 바로 제방이 뻗어나가고 있는 쌍바위섬이라는 것이 전설의 줄거리이다. 「객지」의 '읍내'와 「청년개척자의 수기」의 '서울'은 현실과 대비되기도 하면서 현실을 비춰보게 하는 물질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두 소설에서 '읍내'와 '서울'은 현실을 깨닫게 하는 작동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2. 우연과 반전 - 비와 태풍의 모티브

「객지」에서 파업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모티브는 비이다. 「청년개척자의 수기」에서는 성철이 교대기간이 끝나고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매개물로 작용하는 것이 폭풍을 동반한 비이다.

"비가 올 거 같습니다. 우리 일이 쉬워지겠군요."
<…>
"비가 오면?"
"첫째는 날품 인부들의 빚이 늘어날 테니, 일기가 개일 때쯤엔 불평불만이 그만큼 더 커질 거요. 둘째, 회사측의 작업계획량이 밀려서 웃개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 셋째, 웃개를 하게되면 목돈이 들어옵니다."

21) 김관일, 앞의 책, pp.161-165.

<…>
"따라서 쟁의기간 동안의 자금이 확보되는 셈이죠."
<…>
"누구든 얼마간의 현금이 모이면 어쩐지 앞날에 희망이 있어 보일 겁니다."[22]

이들에게 쟁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결정적 동기는 바로 비이다. 그리고 비는 뇌성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바뀐다. 비가 그치고 예상대로 웃개 일이 시작된다. 웃개 일을 조작하는 감독조원과 대위는 시비가 붙고 그 일은 쟁의의 도화선이 된다. 이렇듯 비는 인부들의 빚을 늘어나게 하고 회사가 웃개를 시키게 함으로써 쟁의 자금을 확보하게 하는 기재로 작동한다.

「청년개척자의 수기」에서의 자연의 힘인 태풍은 소설의 극적인 반전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객지」와 유사하다. 성철은 교대기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다 태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발길을 돌린다.

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늘땅이 온통 맞붙은듯 뽀얀 눈가루가 이는 그 막막한 공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광풍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듯했다.
우리 제방이, 우리 휴게실이 어떻게 됐을가?
<…>
제방끝으로 달려가려던 나는 누군가의 다급한 웨침소리에 우뚝 멈춰섰다.
"거기 누가 없어? 여기 와서 이걸 좀 당겨!"
나는 곧 그리로 달려갔다.
<…>
"알게 뭐요. 왜 왔는지…아마두 태풍이 나를 이리로 날려보냈겠지."[23]

---

22) 황석영, 앞의 책, pp.191-193.
23) 김관일, 앞의 책, pp.170-171.

뜻하지 않은 태풍은 성철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한다. 성철을 내내 괴롭혔던 번민들은 일순간의 태풍에 날아가 버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공사현장으로 달려간다. 그의 말처럼 그를 다시 돌려보낸 것은 다름 아닌 '태풍'이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를 버리고 '대원들'에게로 합류한다. 각자의 '나'들은 전체의 '대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대원들'에 합류하면서 사라진다. 「객지」에서 시기적절하게 내린 비와 「청년개척자의 수기」에서 느닷없이 불어 닥친 태풍이라는 자연의 힘은 극의 반전을 위해 적절히 사용된 모티브임에 분명하다.

3. 노동 현장의 노래

「객지」와 「청년개척자의 수기」의 공통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노동요를 부르는 장면이다.

> 한팔 간격으로 떨어져서 3함바 사람들이 탄 궤도차가 나란히 달렸는데 기관사들은 인부들의 기분에 맞추어 서로 속력을 내어 앞지르기 내기를 했다. 화차에 올라탄 인부들이 기관사를 격려하느라고 목청을 돋우어 외쳐댔다. 선로가 한가닥으로 합치는 곳에 가까워지자 양편 화차의 고함소리는 절정에 이르렀다. 장씨네 일행이 탄 궤도차가 먼저 새로운 선로에 들어섰는데 저쪽은 선로 입구에서 앞선 차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자 우 하는 소리와 상대를 서로 야유하는 소리들이 요란했다. <…> 장씨가 열 개 타령을 곡조를 맞추어 뽑았다. 돌을 나르는 자들은 으차 여차 하며 박자를 맞추었으며 장씨가 열 개요, 하면 모두 열이로구나, 하며 목청을 합쳤다.[24]

24) 황석영, 앞의 책, pp.178-179.

달빛도 밝은 간석지 이밤
백리제방 바라보니
구슬땀 흘린 청춘의 보람
가슴에 넘쳐나네
말하라 심장아 청춘의 심장아
그 어떤 영예를 아니면 명예를 바라서 예 왔더냐…25)

래일엔 여기 청춘의 제방
아득히 뻗어가리
금물결 일고 새거리 솟아
웃음꽃 넘치리라
동무여 그날에 그 무엇을 바라랴…26)

「객지」의 타령은 필사적인 노동을 재촉하는 구령이다. 아름다울 것도 없고 서정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단순히 열을 세는 타령에 불과하다. 반복되는 작업을 어서 끝내야 하는 절박한 심정과 노동 현장의 단순성과 건조함을 대변한다면 「청년개척자의 수기」는 노동의 보람이 가슴 벅찬 감정으로 노래되고 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오직 희생의 마음뿐이다. 이는 「청년개척자의 수기」가 노동 현장의 사실적 묘사보다는 고통스러운 노동 현실을 헤치고 나가 혁명적 과업을 달성시키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동요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노동요의 존재는 두 소설의 유사성 논의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5) 김관일, 앞의 책, p.158.
26) 김관일, 위의 책, p.175.

4. 다음 세대를 위한 '그들'의 희생

「객지」와 「청년개척자의 수기」에는 오늘이 없다. 그들의 오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일 뿐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날들의 연속이다. 「객지」의 쟁의는 오늘 당장 개선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내일에 다시 전과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혁이 입속에 남포를 넣고 성냥을 그으면서 열린 결말로 인도한다.

> "꼭 내일이 아니라도 좋다."
> 그는 혼자서 다짐했다.
> 바싹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시고 나서 동혁은 다시 남포를 집어 입안으로 질러넣었다. 그것을 입에 문 채로 잠시 발치께에 늘어져 있는 도화선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윗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어 떨리는 손을 참아가며 조심스레 불을 켰다. 심지 끝에 불이 붙었다. 작은 불똥을 올리며 선이 타들어오기 시작했다.[27]

흔들리는 쟁의 참가자가 자신은 회사 측의 내민 손을 잡겠다고 하자 동혁은 '내일이 아니라도 좋다'며 자신의 결의를 내보인 것이다. 동혁은 지금의 쟁의가 당장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 뒤에 오는 사람들 중 개선된 노동조건의 혜택을 받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청년개척자의 수기」에서도 성철이 '3년간을 매일 같이 장석작업이라는 판에 박은 한 가지 일을 반복할 뿐'으로 '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의 따분한 반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다.

---

27) 황석영, 앞의 책, p.275.

> “이것 보오. 친구, 그건 오늘이 아니라 래일에 속하는 문제요. 래일엔 그 모든게 다 있겠지만 지금은 파도, 감탕, 장석…이런 것들 뿐이요. 알겠소? 그것마저도 우리가 제방을 다 내막은 다음에는 그걸 농장에 넘겨주고 우린 또다시 새로운 파도, 감탕, 장석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하오. 말하자면 우린 그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산단말이요. 사실을 말하면 그렇소.”28)

성철은 자신이 간석지를 건설하면 그곳에서 지어진 문화주택을 자기가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원했던 지난날을 회상한다. 그러나 중대장이 간석지 건설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그것이 뒤에 오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든 장차 문화주택에서 살게 될 인민을 위한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단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비워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자의 자리라는 것이다. 이는 「객지」와 「청년개척자의 수기」의 가장 닮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내 고향의 작은 다리」와 「깃발」의 시대상황의 유사성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80년 이후 실제 현실이 반영된 ‘숨은 영웅’ 또는 ‘보통 인물’ 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문학의 효용성을 되살리고 부분적인 개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작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로써 전반적인 문학의 위기감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천편일률적인 수령형상문학이나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에 충실하게 제작

28) 김관일, 앞의 책, p.155.

된 작품들, 그리고 처음만 보면 끝을 짐작할 수 있고 현실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먼 영웅적 인물들이 난무하는 작품들에 대하여, 북한의 인민독자들은 식상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문학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29] 이에 북한 당국은 변화의 자장이 확산되기 전에 새로운 영웅을 등장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과 가까운 혹은 인민 그 자체의 인물을 통하여 현실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사랑의 코드가 삽입되는 것을 묵인한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의 정치체제나 당의 강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의 1980년대 단편소설인 로정법의 「내 고향의 작은 다리」[30]도 예외는 아니다. 1987년에 창작된 것이나 작품의 배경은 해방 직후의 북한이다. 일제가 남긴 폐허 위에 아직도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 있기에 그들은 '타도'를 외치며 노동의 현장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 노동의 길목에는 작은 돌다리가 있다. 그 돌다리에서 남녀의 사랑이 싹트지만 혁명적 과업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랑은 확인되지 못하고 그들은 전장으로 떠나간다. 북한 문학에서의 '사랑'이라는 명제는 조국의 혁명적 과업 앞에 언제든지 묵음이 될 수 있다. 사랑이 혁명적 과업을 이끌어가는 매력적 소재로 등장하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 조국의 부름 앞에 과감히 포기된다. 비록 혁명의 구호아래 포기되는 사랑이라고는 하나 사랑의 신호 아래 등장인물의 미묘한 감정의 흔들림이 포착되는 것은 이채로운 현상이다.

1980년대 한국 소설에서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민중의 목소리는 '혁명'의 구호를 외치며 사회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노동소설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들은 국시위반이라는 위험한 줄타기를 감수하며 등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홍희담의 「깃발」[31]은 1980년대의 가장 치열했던

29) 김종회, 『위기의 시대와 문학』, 세계사, 1996. pp.115-116 참조.
30) 로정법, 「내 고향의 작은 다리」, 『1980년대 단편선』, 문예출판사, 1990.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깃발」은 일대 사건, 즉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로 「내 고향의 작은 다리」에서처럼 혁명이라는 구호아래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두 소설은 젊은이들에게 '혁명'이라는 구호가 주는 동질감을 살펴보기에도 적당하려니와 두 작품의 비교로 동시대를 살다간 1980년대의 남과 북의 청년들의 동질감 또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 만남과 이별의 매개체 - 돌다리와 자전거 모티브

로정법의 「내 고향의 작은 다리」의 배경은 해방 후 1945년 11월경으로 온 나라가 김일성 장군의 교시로 새 조국 건설에 고무되어 있던 때이다. 성호는 자동차사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가 매일 건너가는 돌다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제사공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처녀를 만난다.

> 성호네 집에서 얼마쯤 나가면 맑은 시내가 흘렀다. 언제나 노래하며 흘러가는 그 시내 가에는 한사람식 건느기 좋게 놓여진 돌다리가 있었다.
>
> <…>
>
> 여기 맑은 시내가의 작은 돌다리로는 벌써 새 생활에 나선 사람들의 활기있는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으니 처녀도 그 가운데 한사람으로 짐작되였다. <…> 처녀는 차앞으로 뛰여드는 그 어떤 장애물처럼 성호의 눈에 자주 걸려들군하였으니 그럴 때마다 성호는 그것이 무엇때문이겠는가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이였다.[32]

---

31) 홍희담, 「깃발」, 『80년대 대표 소설』, 현암사, 1989.
32) 로정법, 앞의 책, pp.252-254.

그 처녀는 성호와 반대편에서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오랜 시간을 같은 곳에서 아침저녁으로 만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통성명도 못한 채 긴 시간이 흘러간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감정을 돌다리의 거리만큼 띄어놓고는 돌다리 앞에서 수줍은 얼굴만 머금은 채 가까워지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새 조국 건설의 혁명적 구호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 성호는 곧바로 전선으로 떠나고 며칠 후 처녀도 전선으로 떠난다.

> 성호가 서로 주소나 알아두자고, 나는 어디에 가든 아침마다 동무와 만나던 이 돌다리를 잊지 않을것이니 우리 기어이 출근길에서 다시 만나자고 가슴 가득한 말이라도 하고 헤여지자고 돌아서니 그때는 처녀가 벌써 하나의 점으로 되어 멀어지고있었다.
>
> <…>
>
> 신의주에서 너와 만났던 그날이 생각난다. 그때 우리를 그처럼 친근하게 만들었던것이 과연 무엇이였던가. 이제 만일 우리가 그 어디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조국이라는 크나큰 감정에 잠기게 될것이니 아껴두자. 그날 우리가 하게 될 말을…33)

「내 고향의 작은 다리」에서 돌다리는 두 청춘남녀에게 사랑과 조국이라는 양끝을 아슬아슬하게 오가게 만드는 모티브이다. 성호와 처녀가 결코 허물지 못한 두 사람 사이의 간극처럼 돌다리는 사랑의 이편을 떠나 조국이라는 저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매우 적절한 은유로써 작용한다.

「내 고향의 작은 다리」의 돌다리가 사랑과 혁명 사이를 오가는 모티브라

33) 로정법, 위의 책, p.268.

면 홍희담의 「깃발」에서 자전거는 일상과 혁명 사이를 오가는 모티브로 기능한다. 「내 고향의 작은 다리」와 「깃발」은 돌다리를 건너 공장과 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공장과 항쟁의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깃발」은 방직공장(제사공장)의 여직공 순분과 형자, 야학당의 강사이자 광주지역 운동권의 핵심인물인 지식층의 윤강일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광주항쟁이 한창이던 때, 투쟁에 참가하려고 도청으로 가던 순분은 우연히 중국집 배달원 김두칠의 자전거를 타게 된다. 그 또한 도청으로 가던 길이었다. 도청에 집결한 사람들은 대체로 노동자 계급으로 지식인들은 모두 '지는 싸움'이라며 광주를 빠져나갔다. 순분은 살아남아서 이 사실을 증언하라는 동료들의 설득에 도청을 빠져나오고 노동자의 힘이 혁명의 근원이라 믿는 형자는 도청에 남는다. 계엄군과의 전쟁은 시작되고 도청에 남아 투쟁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맞는다. 새벽에 다시 일터로 향하던 순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 근로자들을 만난다. 그리고 도시락을 동여맨 그들의 펄럭이는 옷자락에서 깃발을 본다.

돌다리를 건너 성호와 처녀가 노동현장과 전선으로 향하듯 자전거를 타고 김두칠과 순분은 도청으로 혹은 노동현장으로 향한다.

> 앞서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가 힐끗 돌아다보았다. 속력을 늦추었다. 순분이가 다가가자 남자가 말했다.
>
> "도청 가시죠?"
>
> 순분은 대답을 않고 계속 걸어갔다. 남자가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다시 말했다.
>
> "꽤 먼 거리잖아요. 뒤에 타세요. 안전히 모셔다 드릴께요."
>
> 순분은 주저하다가 자전거 뒤에 올라탔다. 손을 어찌할까, 하다가 속력을 내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남자 허리께를 붙잡았다. 시민들은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도청으로 갔다.[34]

순분과 노동자들과 투쟁에 가담한 많은 사람은 도보로 혹은 자전거로 도청을 향했다. 돌다리를 건너 전장으로 갔던 성호와 처녀처럼 자전거에 몸을 실을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한 현장으로 향했다. 자전거는 항쟁 속으로, 혹은 노동의 현장 속으로 떠나는 청년의 길을 동행한다. 항쟁이 끝난 후의 일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노동자들로 붐볐다. 붐비는 출근길은 연애의 기운이 감돌고 자전거 소리로 애써 상흔을 덮는다.

>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들도 있다. 그녀들 곁을 지나가는 남자 근로자들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녀들은 미소 지었다. 뒤에서 찌르릉 소리가 한꺼번에 울렸다. 근로자 서너 명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길을 비켰다. 자전거들이 다가왔다. 그녀들 곁을 지나치면서 한 근로자가 말했다.
>
> "뒤에 타세요."
>
> 그녀들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뒤쪽에 도시락 가방이 꽁꽁 묶여 있었다. 그가 힘껏 페달을 밟았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갔다. 증기기관차의 김처럼 입김을 씩씩 뿜어 내며 힘차게 달려갔다.
>
>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작업복 자락이 펄럭였다. 점점 멀어지면서 새벽 여명 속에 옷자락의 펄럭임만이 보였다. 수없는 펄럭임이었다. 그것은 깃발이었다.[35]

자전거를 타는 청년들의 뒤에서 깃발처럼 펄럭이는 옷자락은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듯하다. 돌다리와 자전거는 청년의 길을 동행한다는 점에서 무척 유사하다.

---

34) 홍희담, 앞의 책, p.452.
35) 홍희담, 앞의 책, pp.503-504.

2. 혁명의 이름으로 호출된 청년들

「깃발」은 1980년대의 젊은 청년들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희생한 순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내 고향의 작은 다리」 또한 전후 북한의 시대 상황에 자신들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젊은 두 남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소설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36] 남북의 상이한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명확한 공통점은 있다. 바로 혁명이라는 구호가 청년들을 소집해내는 힘이라는 것이다. 혁명이나 항쟁의 구호아래 동원될 수 있는 청년의 모습은 두 소설에서 매우 흡사하게 그려진다.

「내 고향의 작은 다리」는 서정적인 내용이지만 일밖에 모르는 남녀가 사랑의 감정이 무르익기도 전에 희생도 마다않고 전장으로 떠나간다. 「깃발」 또한 혁명을 위한 청년의 희생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시각이다.

> 성호는 처녀와 자기와 돌다리가 그대로 비껴있는 거울을 품속에 고이 간직한채 전선으로 떠났다. 며칠후 처녀도 돌다리를 건너 전선으로 떠나갔다. 바로 이런 젊은이들이 미국놈들과 싸웠다.[37]

---

36) 「깃발」의 배경은 1980년대이고 「내 고향의 작은 다리」의 배경은 전쟁 후이다. 1980년대에 발표하였으나 전쟁 후를 배경으로 한 「내 고향의 작은 다리」에서 청년 동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전후의 총후봉공의 충성심을 인민에게 여전히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청년의 동원 방식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1980년대 발표된 두 소설의 청년 호출 방식의 유사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37) 로정법, 앞의 책, p.268.

성호와 처녀에게 미국은 어떠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분명 조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늘 만났던 돌다리에서 늘 같은 모습이었던 두 사람이 '악보상에는 없는 징소리로 하여 무참히 파괴되여버'리게 만든 원인은 전쟁이었으며 그 전쟁에 나가 싸워야할 대상은 바로 미국이었다. '노래처럼 자기 박자에 맞추어 흘러가던 우리 생활의 선율'을 흔들어 놓은 '미국놈'과의 전쟁은 두 청년에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스럼없이 떨치고 갈 만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새 조국의 건설에 모든 힘을 쏟고 노동에 전념하다가 미처 사랑의 감정마저 놓치고야 마는 성호는 전쟁의 부름에도 망설임이 없다. 그들에게 조국의 혁명은 청춘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힘이다.

「깃발」에서는 노인의 입을 통하여 미국에 대한 의식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 순분이 가리킨 곳에 큰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 <미국 항공모함 부산 앞바다에 정박중.
>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나라입니다. 광주의 민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부산에 미국 항공모함이 정박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광주는 피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도청에 집결합시다.>
>
> <…>
>
>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순분에게 물었다.
> "뭐라고 썼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구먼."
>
> <…>
>
> "큰 나라는 믿을 것이 못 돼."[38]

38) 홍희담, 앞의 책, p.477.

큰 나라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순분은 왜 그런지 재차 묻는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당시 국방군에 입대해서 평양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이미 평양이 유엔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부아가 치밀었고 이겼다는 생각보다 우리의 금수강산을 초토화시킨 큰 나라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고 했다. '믿을 건 제 민족밖에 더 있겠어? 싸우네 마네 해도 제 새끼, 제 가족, 제 동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살붙이니까. 딴 나라는 믿을 것이 못 된다니까'라는 할아버지의 말은 당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그것만큼이나 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순분과 그녀의 동지들은 담담히 투쟁의 길로 들어선다. 믿을 것은 제 동족뿐이지만 동족끼리의 전쟁에서 그들은 국가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립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만 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치던 「깃발」의 인물들은 담담히 전선으로 떠나갔던 성호와 처녀처럼 죽음 앞에서 담담하다. 이는 그 혁명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진다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상관할 것 없이 청년이라면, 또는 청년이라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의 남과 북이라는 공간은 청년이라는 이름이 이념과 상관없이 동일한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수한 곳이었다는 점 또한 두 소설에서 읽을 수 있는 공통점이다.

3. 기꺼이 동원되는 여성들

「내 고향의 작은 다리」에서의 처녀는 여성의 사회적 동원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묘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의 잠자고 있는 노동을 활용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고 문학에서도 여성들이 어떻게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는가에 방점을 찍기 시작하였다. 이에 바람직한 여성상을 논

할 때 그 인물이 얼마나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 초점이 되었다.[39] 1980년대 북한에서 여성동원의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면 남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여공(여성노동자)'이라고 불리던 어린 소녀들이 국가 경제 이바지라는 명목 하에 처참한 착취아래 놓여있었던 점을 상기치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런 여공이 「깃발」에서와 같이 혁명에도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여성 동원의 문제를 1980년대 남북한 사회의 공통된 한 부분으로 볼 때 남북 문학 작품에서 그 유사성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내 고향의 작은 다리」의 처녀는 여리고 수줍은 여성이지만 국가의 생산력 앙양에 언제나 부지런히 쫓아다닌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에는 순식간에 여전사가 되는 것을 마다치 않는다. 처녀는 여성스럽고 단아하게 묘사되고 있지만 이름도 없는 처녀로 등장하여 이름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그야말로 '숨은 영웅'이 되기 딱 알맞은 인물이다.

> 처녀는 매일아침 제일먼저 다리를 건너왔다. 보통사람들이 한창 조반상을 받고있을무렵이였다. <…> 처녀는 늘쌍 뛰여다녔다. 원래 걸음새가 그렇게 보일정도로 언제나 총총히 뛰는 자세였다.
>
> 해방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
> 언제나 뛰는 처녀![40]

그 처녀는 제사공장에서 포상휴가를 받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였다. 그리고 얼마 후 돌다리를 건너 전장으로 떠난다. 이름 없는 노동자에서 이름 없는 군인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시대적 상황에 기꺼이 동원되는 여성

---

39)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3, p.249.
40) 로정법, 앞의 책, p.253.

이라는 점에서 「깃발」의 여성과 닮은 부분이 있다. 자신이 속한 환경에 스스럼없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소설의 여성은 매우 유사하다.

「깃발」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노동자이지만 시간을 쪼개어 야학에도 나가는 부지런한 산업역군으로 묘사된다. 그러다 광주항쟁이 일어나자 전쟁과도 같은 항쟁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인물로 변신한다. 대표적 인물은 주인공 순분이지만 친구 형자는 항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 형자가 말했다.
> "……그러려면 투쟁에 적극적으로 감담해야 돼."
> "난 총을 들고 싶어."
> 영순이의 말을 미숙이가 받았다.
> "난 시민군으로 들어갈거야."
> "여자 시민군도 있대?"
> 영철이가 놀렸다. 미숙이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 "여잔 시민군이 못 되나 뭐."
> "총을 쏠 줄 알아야지."
> "배우면 되지."[41]

순분은 그녀와 함께 했던 많은 동지를 위하여 그 현장의 생생한 증거로써 살아남게 된다. 그러나 형자는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도청에서 죽음을 맞는다.

순분이나 형자, 그리고 친구들은 노동 현장에서 투쟁의 현장으로 뛰어든다. 「내 고향의 작은 다리」와 「깃발」에서는 노동 현장과 투쟁의 현장에서 청년의 힘이 공통적으로 가감 없이 발현된다.

---

41) 홍희담, 앞의 책, p.468.

Ⅴ.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통일을 위한 모색(결론을 대신 하여)

1980년대에 「객지」와 「깃발」을 비롯한 남한의 많은 소설이 북한에 대거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1980년대 북한의 소설에서 남한문학의 흔적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 충분함이 있다. 이에 1980년대 북한의 단편소설을 살펴본바 남한의 소설 「객지」와 북한의 소설 「청년개척자의 수기」의 모티브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대비의 공간으로 사용된 읍내 모티브나 우연과 반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와 태풍의 모티브는 서로 유사함과 동시에 작품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노동 현장의 노래나 다음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희생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두 소설이 채택하고 있는 모티브의 유사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남한의 시대적 상황은 혁명과 항쟁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아래 놓인 청년들은 북한의 청년들과 닮은 부분이 있다. 남한의 소설 「깃발」과 「내 고향의 작은 다리」에서는 자전거와 돌다리가 서정적인 느낌의 소재로써 만남과 이별의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공장과 항쟁의 중심으로, 돌다리를 건너 공장과 전장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두 소재는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두 소설에서 청년들이 시대의 부름에 기꺼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유사하다. 정치적 이념과 상황은 다르지만 청년이 당위적으로 호출되고 여성이 기꺼이 능동적으로 동원되는 상황은 두 소설에서 매우 각별히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남과 북은 분명 들끓고 있었다. 현실을 고발하는 남한의 사실주의 소설이나 체제선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야만 혹은 허락해야만 했던 북한의 소설에서 청년을 호출하고 있다는 점은 커다란 공통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경제와 인민생활에 방점을 두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남과 북의 교류는 냉랭하지만 최근 김정은은 공식석상에서 인민과 경제에 대한 어휘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젊은 힘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42] 이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을 늘 대비해야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의 것이든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아내야만 한다. 문화적 교류는 김정일 체제 때보다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지닌 젊은 파워는 -남한의 인내와 접촉을 시도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는 전제하에-커다란 물리적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남북 분단은 이미 60년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문학이 오랜 시간 체제순응의 문학으로 고정화되어 변화 발전의 양상이 더딘 것은 사실이나 1980년대 한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한 일이 있었기에 새로운 지도자의 새로운 발상이 그러한 변화를 다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감을 놓기는 어렵다. 행여 북한의 문학이 주체를 위한 문학으로 계속 정체한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의 문화적 괴리 현상을 더디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교류는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생활을 담아내는 문학에서 꾸준한 교류와 연구를 이어간다면 크고 작은 접점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42) 송정호 우석대 교수와 이상원 원광대 교수의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권력구조 분석」 논문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총 1,467단어로 이루어진 열병식 연설에서 모두 97번 인민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설문을 10만 단어로 환산했을 때 인민을 6,612번 사용한 것과 같은데 이것은 김 제1비서가 2013년의 경우 10만 단어 중 인민이란 단어를 평균 2,500번 가량 사용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김 제1비서의 전체 문건을 분석한 결과 '인민생활'과 '경제'라는 단어가 '선군'과 '핵'이라는 단어에 비해 출현 빈도가 점차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정은, 평소 '인민' 강조…열병식 때 97번 '이례적'」, 한겨레신문 2015. 10. 19 참조)

접점들은 문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기수로 작용할 수 있음에 분명하다. 남북통일이라는 과제는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스며들듯 문화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남과 북은 그리 멀리 그리 오래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북한 서적>

『1980년대 단편선』, 문예출판사, 1990.
『문학작품집』(1985), 문예출판사, 1987.
『문학작품집』(1985), 문예출판사, 1987.
『문학작품집』(1986), 문예출판사, 1988.
『문학작품집』(1987), 문예출판사, 1989.
로정법단편집, 『모닥불』, 문예출판사, 1987.
백철수단편집, 『해당화』, 문예출판사, 1988.
전기영단편집, 『날개』, 금성청년출판사, 1988.
『조선문학사』, 문예출판사, 1978~1992.(14권)
『조선문학사』(1945~195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역락 영인본.
『조선문학사』(1959~197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역락 영인본.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1920년대 후반기~1980년대 전반기), 북한문예연구자료선2, 인동 영인본, 1992.
류 만, 『조선문학사』(1926~1945), 사회과학출판사, 1995.
_____, 『조선문학사』(1946~1975)Ⅱ,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남한 서적>

황석영, 『황석영 중단편전집』, 창비, 2009.
『80년대 대표 소설』, 현암사, 1989.

2. 논문 및 단행본
강주영, 「무속신화의 모성애와 김정일 형상화-1980년대 북한 단편소설 김정민의 「생의 축복」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
김상희, 「소설 「객지」에 나타난 공간과 인물」, 『동남어문논집』 제20집, 동남어문학회, 2005.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김은종, 「1990년대 '사회주의 현실주제' 단편소설 연구-『조선문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08.
김재용, 「80년대 북한 소설문학의 특징과 문제점」, 『창작과 비평』1992년 겨울호(통권 78호), 창비, 1992.
_____,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_____,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 2』, 한길사, 1996.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3.
김종회, 『위기의 시대와 문학』, 세계사, 1996.
_____ 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_____ 외, 『작품으로 읽는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역락, 2007.
_____ 편, 『북한문학의 심층적 이해』-남한에서의 연구, 국학자료원, 2012.
_____ 편, 『문학예술의 혁명적 전환』-북한의 비평, 국학자료원, 2012.
김한식, 「노동 소설의 성장 소설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국제어문』 제31집, 국제어문학회, 2004.
김효신, 「90년대 초기 북한 단편소설의 경향 소고-『조선문학』(1991.2~1991.3)에 수록된 7편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pp.149-163.
권동우, 「1980년대 북한 소설과 동원의 정치학-『1980년대 단편선』 수록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p.1-30.
남원진, 『남북한의 비평 연구』, 역락, 2004.
노상래, 「1980년대 북한소설 연구-『1980년대 단편선』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1, pp.743-787.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엮음, 『북한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2.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 깊은샘, 1999.

박태상, 『북한문학의 동향』, 깊은샘, 2002.
_____, 『북한의 문화와 예술』, 깊은샘, 2004.
박혜민, 「북한 소설의 여성 인물 형상화 방식 연구-1990년대 『조선문학』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11.
설성경 · 김영민,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 연구」, 『통일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8, pp.161-202.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6.
_____ · 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안남연, 「황석영 소설의 역사인식과 민중성-황석영의 1970년대 소설 연구」, 『상허학보』 제13집, 상허학회, 2004.
안민희, 「북한의 '3대혁명 문학'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1970년대『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09.
연용순, 「1990년도 北韓 단편소설 연구-『조선문학』을 중심으로-」, 『順天鄕語文論集』 第5輯(朴泰男 · 朴乙洙 敎授 華甲記念號), 1998, pp.423-438.
윤재근 · 박상천 공저, 『북한의 현대문학Ⅱ』, 고려원, 1990.
이명재,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체』, 국학자료원, 1998.
이복규, 「북한의 문학사 서술양식」,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1989, pp.3-27.
이상순, 「북한문학의 "민족적 특성론" 연구-1950~6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이재인, 「北韓의 現代小說槪觀-북한의 최근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5집, 경기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1997, pp.65-77.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북한문학의 지형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임진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단편소설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10.
전영선, 「북한에서의 고전소설 수용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북한연구학회, 2000, pp.293-317.
킨가 드굴스카, 「북한문학에 나타난 김정일 우상화 경향 연구-『불멸의 역사』와 『불멸의 향도』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6.
한수경, 「북한의 통일 주제 문학 연구-1990년대 이후 단편소설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5.
현대소설연구회,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4.

Abstract

Traces of South korean literature in North korean short novels in 1980s

- Focused on 「Essay of a Young pioneer」, Kim Kwan-il and 「Small bridge in my hometown」, Ro Jung-bup -

Kang, Ju-Young

This paper is designed to find evidence of a South korean literature at North korea in 1980s that temporarily changes shown. North korea in 1980s a new literature of creation was expected to fit in real life,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creation began to turn things around. At this time of novels that was not only individual conflicts and desires began to gush that the previous literature could not find, also revolt and an Anti-american sentiment, accept South korean literature was published literary such as 「The basin」 by Nam Jung-hyun, 「Sea walls」 by Lee Mun-goo, 「Get off your kit off」 by Shin Dong-Yeop, 「Strange places」 by Hwang Suk-young, 「The dwarf」 by Jo Se-hee, 「Five thieves」 by Kim Ji-ha, 「The flag」 by Hong Hee-dam and 「The Voyage of the Dawn」 by Bang Hyun-suk, etc the desire of reunification is expanding. Among novels created in North korea under this circumstance of society 「Essay of a Young pioneer」, Kim Kwan-il and 「Small bridge in my hometown」, Ro Jung-bup had been found having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flag」, Hong Hee-dam and 「Strange places」, Hwang Suk-young in South korea. There are some similarities using as motive like city, 'rain' and 'typhoon' each novel, and the song in workplace, sacrifice for the next generation both 「Essay of a Young pioneer」, Kim Kwan-il and 「Strange places」, Hwang Suk-young, both novels are adopted similarity of the motive. Without revolution and movement in 1980s, South korea is hard to explain about the situation of era. Under these circumstances not only North korea's

young people who lived the same time with South korean were similar, in 「Essay of a Young pioneer」, Kim Kwan-il and 「Strange places」, Hwang Suk-young, they were use stone bridge and bike lyrically as writing material that ahead to the centre of war and factory as cross the bridge and the centre of war and struggle with bike those points were also very similar. Besides, Both of youth that they are willing to be mobilized to the call of in two novels also very similar. Even-though situation and political ideologies are different, young man actively mobilized and women also can do as the situation very particularly are having similarities, as well. Therefore, among North korean novel mainly subject literature, Finding the traces of a South korean literature from a North korean novel in '80s, which is division of literature of communication will be a useful opportunity to ready to cultur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to accomplish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I think that is one of the issues that we need to look at actively.

Key Word : North korean short novels in 1980s, South and North korean cultural unification,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ry exchanges, laid down their lives for the country. mobilizing the female, Similarities in South-North korean literature, 「Essay of a Young pioneer」 by Kim Kwan-il, 「Small bridge in my hometown」 by Ro Jung-bup

강주영
소속 :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kdb5390@naver.com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